

진리에서 살고 진리에서 죽고 진리에서 배우는 것이 불교

25면에서 계속

해를 사고 그냥 뛰다가 병이 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비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조건이 다 맞아서 자비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이, 이 사생에 관한 건이 같이 더불어 이렇게 전부 살고 있으니 그 모두가 소중한데. 내가 살아보니까 모두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때 거만하 보면 이 방생이라고 한다는 그것이 고기를 그냥 산 채로 잡아다가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놓으면 또 사다가 거기다 놓아요. 놓으면 놓는 그 즉시 또 그를 질 해서 또 잡아다 놔요. 그게 방생이 아니라 지옥고를 당하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방생이 얼마나 할 때가 없어서 그런 방생으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죠.

고기 방생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는 산사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지렁이 뭐 미꾸라지 소라 등이, 하여튼 가재 게 붓어 할 것 없이 늘비했습니다. 뜰 안에 그냥 늘비했어. 그러니까 물도 없는 데서 모두 죽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그걸 담아서 강에다 넣어준 그런 이치상 생긴 것입니다. 물이 없는 데 있는 고기를 물 있는 데 갖다 놓는 게 방생이지 어떻게 물 있는 데서 사는 걸 잡아다가 고생을 기껏 시키고는 죽는 것도 많고 그런데다가 또 잡아다 놓고 또 견지고, 이게 방생입니까, 어디? 그건 방생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죽이는 것만도 못하죠. 이, 사람 방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참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아주 모르게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나고 인연이 되면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우리 형제에 따라서 도와주면 그게 방생이예요. 물 없이 사는 거 물 있는 데다 갖다 넣어주는 것도 방생이요. 또 옛날에 제비 다리 해줬다는 것처럼 아, 가다가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는 거 감아서 치료해서 날려보내는 것도 방생이요. 그런 게 진실한 방생이지 어떻게 그게 방생입니까? 그렇게 방생이 잘못돼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들으니까 외국 두꺼비를 갖다가 방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왜 한국에도 많은데 외국에서까지 사다가 넣어가지고 그 야단입니까?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겸손하고 동급고 너무 욕심차리지 마시고, 그저 나한테 닦히는 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렇게 야단법석하죠? 과거의 역사를 본다고 해도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저렇

게 고생들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예전에 왕을 하고 그레가지고 선 그 난리가 나고 칼부림이 나고 죽고 이렇게 사느냐는 얘기도. 세상에 돈을 주고 하라고 그래도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말입니다. 하하.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또 자기 영혼도 다 더럽히고 자식들 대까지도 더럽히고 그냥 대대손손이 그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성한 이름을 남기게 이전에 그런 이름을 남긴다면 그건 치욕적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지극하게 참, 자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추위를 당해도 참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고생이 돼도 인내를 하고 사는데 우리 사람으로서, 고등동물로서 그런 인내가 없이 질서없이 무분별하게 산다면 우리는 사람 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공부라는 거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근본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직여지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부터 나오고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내 영원한 나의 근본 때문에 내 육신이 형성됐으니까 말입니다. 알고 본다면 아주 지극

정을 거처올 때 억겁, 천겁, 만겁을 거처올 때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했다가 잠깐 또 진화돼가지고 또 다른 부모가 되고 다른 자식이 되고 또 거기서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 올라오기를 해야 할 수 없이 거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생각할 때는 지금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전체가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전체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그냥 순간 모습을 바꿔서 자식이 돼서 나오고 순간 바뀌어서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있던 없든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솟든 간에 눈도 깜짝하지 말고 이 내 주인공이라는 자체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근본 불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 불성만이 내 몸을 움직여지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보다가가 되고 해결사가 돼주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걸 딱 믿어야지 딱 데를 믿었다간 만날 속고, 만날 걸리고, 맞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아주 진정한 자기의 보다가드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진짜 자기의 해결사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그

나가버렸다고요. 나가면 밤새고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님 친견하고도 안되고 또 동생이 재를 올린다 그래서 재도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안되고 이러니까 저도 동생한테 어떻게 가르쳐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스님.

스님: 이거 봐요.

질문자(여): 예.

스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질문자(여): 동생 얘기...

스님: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런 건 한두 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도 또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질문자(여): 그리고 스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어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님: 내가 한마디 묻겠어요.

질문자(여): 예.

스님: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자(여): 대구에서 왔습니다.

스님: 여기, 그럼 대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또 현재에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어도 또 육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육신은 하난데, 하도 마음이 다른 육신들한테 그냥 모두 들어가서 자기가 돼봤기 때문에, 허허허. 그분은 구더기가 돼도 상관없고 어떠한 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전부 나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비하게 모두 평등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평등한 것이 똑같아서 평등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은 평등하지만 이 모습으로서 굴리는 데는 평등치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지요, 용도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그 윤통성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가 돼라' 해서 사생자부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뼈 한 무더기를 놓고 그렇게 가르쳤던 말입니다. 수많은 과

거를 꼭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여):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질문이 두 가지 있어서 왔습니다. 한 가지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애원을 드리러 왔습니다. 뒤에 있는 얘기가 동생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가 계속 가출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육학년인데요.

스님: 그런 거는요, 날마다 11시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오십니다. 그때 말씀을 하세요.

질문자(여): 그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님이 관하라고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되고 그래서 동생은 제가 스님 한 번 더 찾아 뵙고 스님한테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스님한테 말씀드리조차도 창피스럽다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 제가 어쩔니까, 언니네.

스님: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들립니까?

질문자(여): 그대 동생 애한테 동생은 애가 나가면 저한테 전화해서 올면서 그러거든요. 애 또

질문자(여): 제가 나온 지는 삼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스님: 삼 년이 넘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상당히 미흡하신데요.

질문자(여): 중간에 게임을 많이 피웠습니다.

스님: 삼 년이 되면 뭘 합니까? 예?

대중: 잘 안 들립니다.

스님: 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질문자(여): 그러면 스님, 어제 밤에 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스님: 아니 꿈이 무슨, 지금도 꿈입니다. 이거! 하하. 이따가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남):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왕십리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공부를 하게 된 거는 작년 8월부터입니다. 신촌에 있는 만덕사란 절에서 청년 불자들이 모여갖고 공부를 하는 모임인데요, 여기 선원에 계시는 스님이 지도를 하

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마음공부를 알게 되고 지금 와서는 많은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불교신자로서의 보람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의람되지만 제가 여기 선원에 나오면서 스님에 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여자 문젠데요, 첫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선원에 다니게 되면서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게 되는 것 자체도 저의 뜻이 아니고 한마음 주인공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원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대형 스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습니. 다름이 아니라 스님께서 방편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으시지만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 신도들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걸 보면 실제로는 크나큰 권위와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외람되지만 사교 집단의 교주와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주인공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스님한테 같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여자...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요, 마음이 참 이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비록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되고 나서 주인공한테 항상 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마음에 있는 여자가 나타나면 저 여자만이 된다, 다른 여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자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집착과 조금함을 가지고서 제 생각만 따라갔고 조금하게 다가가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주인공한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쉽게 되면 재미없지 않느냐. 좀 너무 잘되게도 하지 마라. 적당히 좀 어렵게 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평생의 동지로서 가족을 한번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스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자가 저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맞게 그리고 저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게 한마음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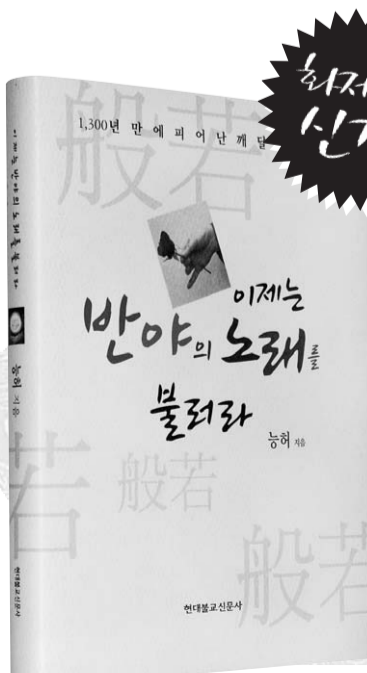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4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마문'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마문 02)737-0695

"낙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菴)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대장부라네. 차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행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최제의
신간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알아 아니라 깨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요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명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따미 흘러도 모르고 있었다. 찬바람에 따미 식어지자
추위가 닦쳐왔다. 그제서야 반쪽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어!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법문 중에서

- 본문 중에서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